www.kihasa.re.kr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71호 (2026-1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8. 10. ISSN 2092-7117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

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이 글은 개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편된 BLI 체계에 따라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값은 5.99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19위에 해당하였음.
- 지표 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지표 체계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바뀐 체계에서는 환경의 질,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이 크게 개선되었음.
- 한국은 지표 특성별로 보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영역별로는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함.

01.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개편

◆ OECD는 2025년 11월 웰빙 모니터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국민의 생활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웰빙 모니터링 체계는 3개의 대화형 대시보드와 '더 나은 삶 지수' 웹페이지[1]를 통해 각국의 웰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개의 대화형 대시보드는 현재의 웰빙 성과(Current well-being), 집단 간 격차(Gaps between groups), 그리고 미래의 웰빙(Future well-bein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https://www.oecd.org/en/data/tools/well-being-data- monitor.html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OI: 10.23064/2026.8.471

- 이와 함께 BLI(Better Life Index) 웹페이지[2]에서는 현재 웰빙 성과의 대표 지표를 이용하여 영역별 점수를 보여주고, 이용자가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정하면서 각국의 웰빙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 이러한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는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으나, 2024년 3월 이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주목도가 낮아진 바 있음.

- OECD는 'How's life?' 2020년 보고서에서 변경된 웰빙 대표 지표를 제안하면서 이를 반영한 웹사이트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
-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 3)에서는 OECD BLI 순위 개선을 정부 혁신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2019. 12)에서도 이를 다룬 바 있음.
- 그렇지만 최근에는 BLI가 아니라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성과 목표로 제시하는 등 BLI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음.

◆ **이 글에서는 개편된 OECD BLI 지표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BLI를 실측하고 웰빙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함.**

• BLI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는 'How's life?' 보고서의 지표 중 대표 지표(headline indicators)에 해당하므로 이번 BLI 지표 체계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How's life?' 보고서의 지표 선정 문제의식을 먼저 살펴보겠음.

• 이어 한국의 BLI 영역별 발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및 OECD 국가의 BLI 점수를 산출한 뒤 한국의 웰빙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현재 OECD BLI 웹페이지에서는 영역별 각국의 순위와 대략적인 점수는 확인 가능하지만, 정확한 값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BLI 수준에 각 영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참고로 BLI 웹페이지상 한국의 종합 순위는 38개 국가 중 20위로, 이 글에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여 측정한 값과 미세한 차이가 있음.

02. OECD BLI 지표 체계의 변화

◆ **OECD는 'How's life?' 2011년 보고서 이후 발간 때마다 대표 지표를 조금씩 변경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BLI 산출에 이용한 지표는 'How's life?' 2024년 보고서의 대표 지표에 해당함.**

• OECD는 'How's life?' 2011년 보고서에서 물질적 조건의 3가지 영역과 삶의 질의 8가지 영역에 24개의 대표 지표를 제안한 바 있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간 때마다 조금씩 대표 지표를 변경하였음.

• 그렇지만 'OECD 웰빙 대시보드의 미래'(2019) 검토 보고서에 기반하여 대폭적 변화를 준 것이 'How's life?' 2020년 지표 체계임.

2) https://www.oecd.org/en/data/tools/well-being-data-monitor/better-life-index.html

- 11개 영역의 웰빙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였는데, 일자리와 소득 영역을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영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에 일과 생활 영역에 있던 장시간 유급노동 지표를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영역으로 옮겨서 '더 나은 삶'에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보고서에서는 영역별로 불평등 지표를 1개 이상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 지표를 대체하는 신규 지표를 포함하였는데, 〈표 1〉에서 밑줄 표시한 지표가 이에 해당함.

• 이어 OECD는 'How's life?' 2024년 보고서를 통해 대표 지표를 일부 수정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2025년 말 공개된 BLI 산출에 활용된 지표와 동일함.

- OECD는 'How's life?' 2020년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BLI 개편을 계획하였지만, 실제로는 2024년 지표 체계가 적용된 것임.
- OECD BLI 측정 지표에 대한 상세 지표 정의 및 자료 출처는 〈부록 표〉에 제시함.

〈표 1〉 OECD 'How's life?'의 판본별 대표 지표

2011~2017 적용 대표 지표			2020, 2024 적용 대표 지표		
주제 영역	영역	지표	주제 영역	영역	지표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과 부	가구 처분가능소득, 1인당 가구 순금융자산(~2015), 가구 순자산(2017)	물질적 조건	소득과 부	가구 순조정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 배율, 가구 중위 순자산
	일자리와 소득	고용률, 장기실업률, 연평균 임금, 단기 근속(2013), 실업 진입 확률(2015), 노동시장 불안정(2017), 직무 긴장(2017)		노동 및 일자리의 질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장시간 유급노동
	주거	1인당 방 수, 기본위생 미비 주거(2011, 2015~2017), 주거지출(2013~)		주거	과밀주거율, 주거비 부담(잔여소득비율)
삶의 질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수명, 자가보고 건강 상태	삶의 질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교육 수준별 출생 시 기대수명 격차(2020), (자살 등) 절망사(2024~)
	교육과 기술	교육 이수, 학생 인지력 PISA(읽기·종합), 기대교육기간(2013), 교육 성취(2015~), 성인 역량 PIAAC(2013~)		지식과 기술	15세 학생 과학 인지 능력(2020), 저성취 학생(수학, 읽기, 과학),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2024~)
	환경의 질	대기의 질, 수질 만족(2013~)		환경의 질	대기오염 노출 인구, 녹지 접근성(2020), 폭염 노출(2024~)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정서 균형(2011)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부정적 정서 균형
	개인 안전	살인사망률, 자가보고 범죄피해(~2015), 야간 안전감(2017)		안전	살인사망률, 야간 안전감 성별 격차
	사회적 연결	사회적 지지	공동체 관계	사회적 연결	사회적 교류 시간, 사회적 지지 부족
	시민참여·거버넌스	투표율, 규칙 제정 자문(~2013), 정부 발언권(2017)		시민참여	투표율, 정부 발언권 없음
	일과 생활	장시간 유급노동, 여가 및 휴식 시간, 취학아동 둔 여성 고용률(2011)		일과 삶의 균형	여가 및 휴식 시간, 총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여성의 초과 노동)

주 1) 'How's life?' 2020년 보고서의 지표 틀에 맞춰 다른 연차 자료를 재배치하여 제시함.

2)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지표명을 일부 수정하였음.

3) 밑줄 친 지표가 불평등 지표임.

4) 지표명 뒤의 (연도) 표시는 해당 연도에 적용하였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지식과 기술의 15세 학생 과학 인지 능력은 2020년 보고서에서만 적용된 지표임. 2024년 보고서에서는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을 이용한 것임.

출처: "How's life?", OECD,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함. 2011의 표 1.1, 2013의 표 1.1, 2015의 표 1.1, 2017의 표 1.1과 1.2, 2020의 부표 1.A, 2024의 표 3을 이용하여 작성함.

◆ **OECD BLI 지표 중에는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있어 불평등 성향을 보여 주는 지표가 포함되는데, 이는 삶의 질에서 '누가 무엇을 누리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음.**

- OECD는 'How's life' 2017년 보고서에서부터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집단 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불평등 접근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How's life' 2020년 보고서에서는 각 영역에 1개 이상의 불평등 지표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불평등 지표를 수직적 격차, 수평적 격차, 박탈 지표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음.

- 'How's life' 2024년 보고서의 대표 지표 중 불평등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격차 지표: 소득 5분위 배율(수직적), 성별 임금 격차(수평적), 야간 안전감 성별 격차(수평적), 총노동시간의 성별 격차(수평적).
  - 박탈 지표: 장시간 유급 노동, 과밀주거율, (자살·알코올중독·약물과다복용사망을 포함한) 절망사(Deaths of despair), 저성취 학생 비율, 대기오염 노출 인구, 폭염 노출, 부정적 정서 균형, 사회적 지지 부족, 정부 발언권 없음.

03.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 측정 결과

◆ **이하에서는 OECD BLI 지표별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지수화를 통해 한국의 삶의 질을 OECD 국가와 비교한 뒤 상대적 발전 수준을 진단해 보기로 함.**

- OECD BLI 웹페이지 결과와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추출 시점을 2024년 말로 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이때 결측값은 OECD가 제공하는 결측 대체값 자료를 이용하여 완전한 데이터셋을 구축함.
  - OECD BLI 웹페이지에 공개된 지수값은 2025년 9월 말 기준 작성한 자료로 계산한 것임. 이 경우 자료 관측값은 보통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2024년 말 기준 시점에 맞춰 데이터를 구축하였음(OECD의 현재 웰빙 데이터셋은 최신 기준으로 갱신된 값을 제공하고 있음).
  - OECD BLI는 결측 자료에 대해 회귀보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체한 별도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결측 대체한 데이터셋을 구축함(한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장시간 유급 노동, 대기오염 노출 인구 비율임).

- 〈표 2〉는 구축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BLI 지표별로 한국의 값(관측 연도)을 제시하고 있음. 지표별로 한국의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값과 해당하는 최솟값(국가)·최댓값(국가) 정보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지표별 균등화에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을 이용하고, 영역별 지표의 전환 점수를 평균하여 영역별 점수를, 다시 이들 11개 영역 점수를 평균하여 '더 나은 삶 지수'를 산출함.
  -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은 '(국가값 – 최솟값)/(최댓값– 최솟값)×10', 지표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는 '(최댓값 – 국가값)/(최댓값– 최솟값)×10'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 지표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지표의 세부 정의는 부록 표에 있음).

- 한국이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이는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잔여소득비율)(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이고, 하위 5위 이내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임.
- 한국은 격차,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이는데, 위 장시간 유급노동 외에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지표가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2〉 OECD BLI 지표별 한국의 측정값, 순위 및 참고

(단위: 각 지표 정의에 따름, 점수)

영역	지표	한국 값(연도)	한국의 최소·최대 전환 점수	순위	최솟값(국가)	최댓값(국가)
소득과 부	가구 순조정처분가능소득	32,644(2022)	3.48	25위	17,348(칠레*)	61,353(미국)
	소득 5분위 배율	5.77(2022)	8.29	27위	3.46(슬로바키아)	16.93(콜롬비아*)
	가구 중위 순자산	247,318(2023)	2.44	10위	60,466(덴마크)	825,604(룩셈부르크)
노동 및 일자리의 질	고용률	76.07(2024)	5.93	29위	59.24(튀르키예)	87.61(아이슬란드)
	성별 임금 격차	28.95(2024)	0.00	38위	-8.68(룩셈부르크)	28.95(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13.69(2024)	4.81	34위	0.49(라트비아)	25.91(멕시코)
주거	과밀주거율	3.98(2021)	8.97	8위	0.65(캐나다*)	32.83(라트비아)
	주거비 부담(잔여소득비율)	84.83(2023)	9.96	2위	73.06(슬로바키아)	84.88(콜롬비아)
일과 삶의 균형	여가 및 휴식 시간	14.83(2014)	3.74	25위	13.85(멕시코*)	16.47(이탈리아)
	총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21.92(2014)	6.71	22위	-26.64(덴마크*)	121.1(슬로바키아*)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83.5(2023)	9.09	5위	75.5(멕시코)	84.3(스위스)
	(자살 등) 절망사	27.97(2022)	5.18	31위	6.96(이스라엘)	50.58(슬로베니아)
지식과 기술	저성취 학생(수학, 읽기, 과학)	7.29(2022)	9.41	3위	5.2(에스토니아)	40.65(콜롬비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	527.3(2022)	9.46	2위	382.7(콜롬비아)	535.6(일본)
사회적 연결	사회적 지지 부족	20.64(2024)	0.00	38위	1.67(아이슬란드)	20.64(한국)
	사회적 교류 시간	4.93(2014)	4.85	30위	1.43(일본)	8.65(콜롬비아*)
시민참여	정부 발언권 없음	42.58(2023)	6.41	11위	25.1(스위스)	73.79(라트비아)
	투표율	77.08(2022)	7.06	11위	46.64(스위스)	89.74(호주)
환경의 질	대기오염 노출 인구*	99.08(2020)	0.18	11위	47.85(핀란드)	100.0(룩셈부르크)
	폭염 노출	0(2023)	10.00	1위	0(오스트리아)	44.19(이스라엘)
안전	살인사망률	0.6(2022)	9.82	8위	0.1(아일랜드)	27.4(멕시코)
	야간 안전감 성별 격차	-15(2024)	5.48	16위	-32(뉴질랜드)	-1(룩셈부르크)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6.5(2022)	2.45	36위	5.8(튀르키예)	8.66(코스타리카*)
	부정적 정서 균형	14.85(2023)	6.42	29위	5.21(스위스)	32.11(튀르키예)

주 1) * 표시는 OECD가 결측치를 회귀모형으로 보정한 추정치에 해당함을 의미함.

2) 밑줄 표시된 지표명은 지표값이 음의 방향을 가지는 지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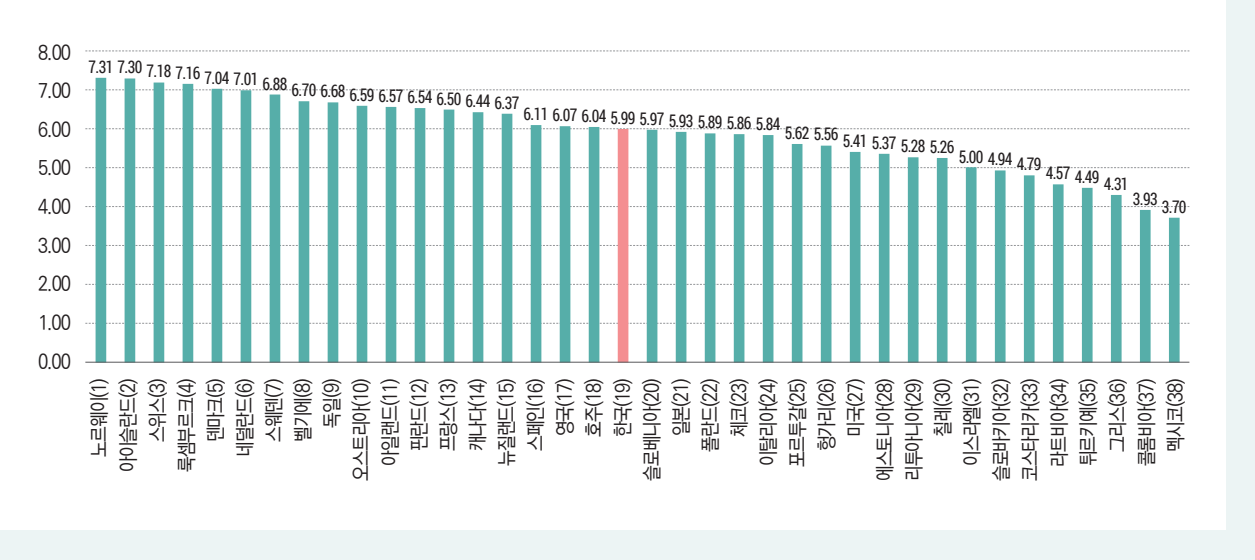
출처: "Current well-being, Current well-being vertical inequality", OECD Data Explore, 2026를 이용하여 기본 작성하고, 결측치는 OECD가 제공하는 R 데이터 파일(.RDS)을 이용하여 보완하였음.

◆ OECD BLI 체계를 이용하여 종합한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 측정값은 5.99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19위로 나타났음.

- 각 영역을 종합한 BLI 점수 기준이며, 1위는 노르웨이로 7.31점, 최하위는 멕시코로 3.70점임.
  - OECD BLI 웹페이지에는 한국 20위, 슬로베니아 19위로 나타나는데, 이 글의 계산에서는 두 국가의 순위가 바뀌었음.
  -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국가는 [그림 1] 기준으로 노르웨이(1위)와 아이슬란드(2위), 스위스(3위)와 룩셈부르크(4위), 체코(23위)와 이탈리아(24위)로 모두 근소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고 있음. 이는 최소·최대 전환 시 기준값 설정 과정에서 단위 절사 등의 방법 차이로 나타남.

[그림 1] OECD 국가의 BLI 점수와 순위

(단위: 점)



출처: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한국은 BLI 하위 영역별 발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이 상위권에 위치한 영역은 주거(1위), 지식과 기술(2위), 환경의 질(8위), 시민참여(9위)이며, 최하위권에 위치한 영역은 주관적 웰빙(35위), 노동(36위), 사회적 연결(37위) 영역임.
  -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른 발전 수준을 보임.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취약한 영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3〉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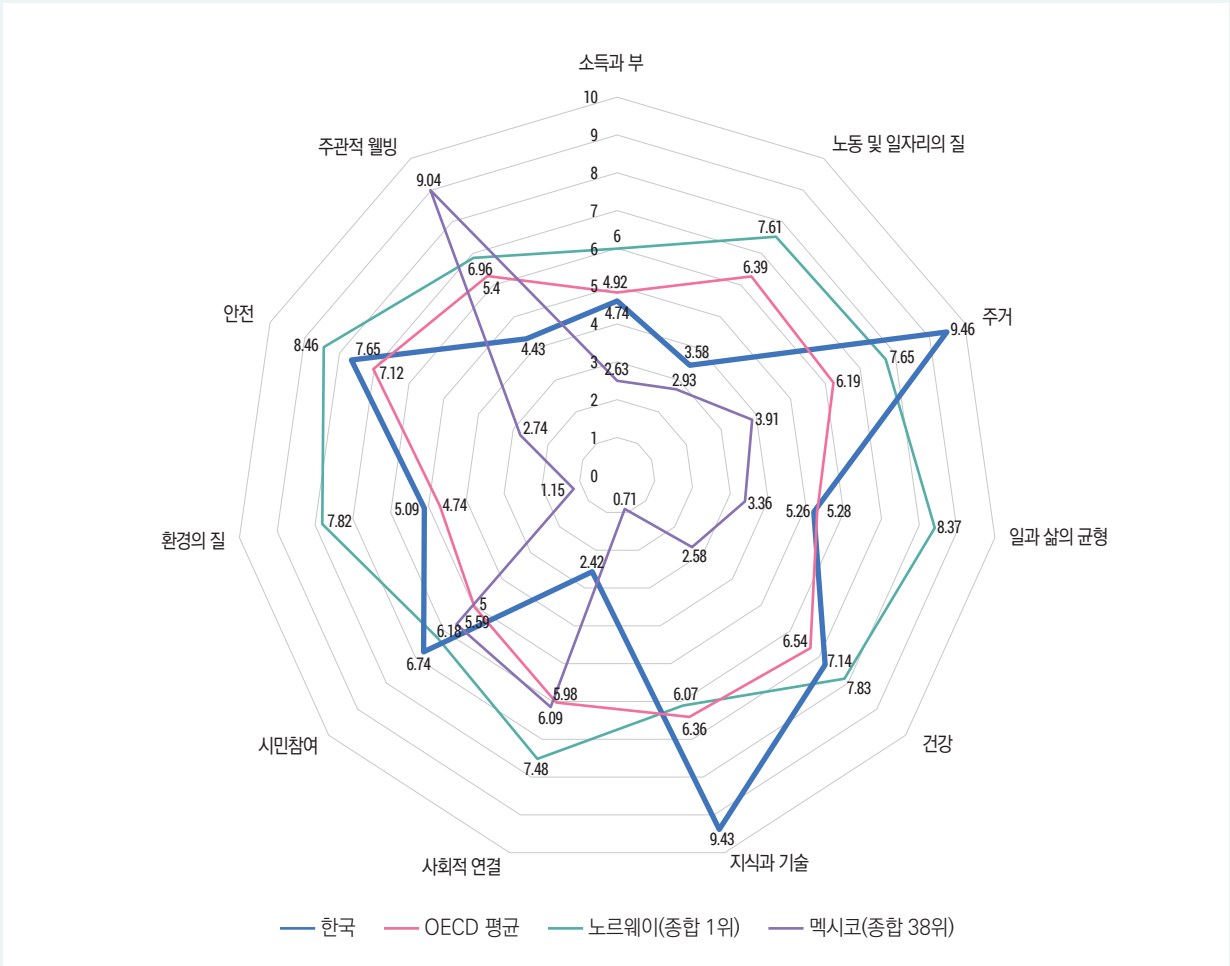
(단위: 점수, 순위(38개국 중))

영역	한국 점수	한국 순위	1위 국가(점수)	최하위 국가(점수)
소득과 부	4.74	24위	룩셈부르크(9.09)	콜롬비아(0.37)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58	36위	룩셈부르크(8.12)	튀르키예(2.12)
주거	9.46	1위	한국(9.46)	슬로바키아(1.58)
일과 삶의 균형	5.23	19위	노르웨이(8.37)	슬로바키아(2.17)
건강	7.14	21위	이스라엘(9.72)	라트비아(0.81)
지식과 기술	9.43	2위	일본(9.99)	콜롬비아(0.00)
사회적 연결	2.42	37위	아이슬란드(8.18)	일본(1.87)
시민참여	6.74	9위	호주(8.92)	라트비아(1.48)
환경의 질	5.09	8위	핀란드(10.00)	이스라엘(0.01)
안전	7.65	15위	룩셈부르크(9.82)	멕시코(2.74)
주관적 웰빙	4.43	35위	멕시코(9.04)	튀르키예(0.00)
종합(11개 영역 평균)	5.99	19위	노르웨이(7.31)	멕시코(3.70)

출처: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그림 2] 한국 및 비교 대상 국가의 BLI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출처: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2025년 말 공개된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는 기존 지표 체계에 따른 BLI 순위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지표 구성 변경에 기인한 것임.**

- 2022년 기준 BLI 측정 결과 한국은 5.40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2위를 보인 바 있음(저자의 별도 계산값임).
-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의 질,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주거 영역이 지표 변경에 따라 순위가 상승하였고,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시민참여 영역은 지표 변경에 따라 순위가 하락하였음.
  - 그러나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은 지표 변경도 없었고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04. 나가며

◆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임.**

- 박탈 지표는 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 주고, 격차 지표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남성과 여성 간에 누리는 삶의 질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
- 이는 BLI 프레임을 이용해 삶이 나아지는지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누구에게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임.
  - 웰빙 수준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더 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은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함.**

- 장시간 유급노동, 자살·알코올중독·약물과다복용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 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과 함께 세부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함.
- 또한 삶의 질 지표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실행과 성과 도출 간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함.

부록

〈부록 표〉 OECD BLI 지표, 측정 단위, 지표 정의 및 자료 출처

주제 영역	영역	지표명	측정 단위	지표 정의 / 참고	자료 출처
물질적 조건 (Material conditions)	소득과 부 (Income and wealth)	가구 순조정처분 가능소득	2022년 USD 구매력지수로 환산(1인당 소득)	처분가능소득은 세금·이전 등을 반영한 가구 부문의 총소득에서 소득·재산세 등 경상이전을 차감해 산출하며, '조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현물 사회이전(교육·보건 서비스)을 포함한다는 의미	OECD 국민계정
		소득 5분위 배율	S80/S20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가구 중위 순자산	2022년 USD 구매력지수로 환산	국내 거주 민간 가구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예: 주택)과 금융자산(예: 예금·주식·지분)의 합에서 금융부채(예: 대출)를 차감한 값(규모·분포가 사회보장체계 특성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다른 사적·직역 연금은 제외)	OECD 자산분배 데이터베이스
	노동 및 일자리의 질 (Work and job quality)	고용률	25~64세 인구 대비 동일 연령 취업자 비율(%)	직전 1주간 최소 1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했다고 응답한 성인 인구(25~64세)의 비율	OECD 고용·노동시장 통계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중위임금 대비 남녀 중위임금 차이(%)	남성 중위임금 대비 남녀 중위임금 차이의 비율	OECD 임금분배 데이터베이스
		장시간 유급노동	통상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15세 이상 피용자 비율(%)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피용자(15세 이상)의 비율. 50시간은 통근·무급노동·기본 욕구(수면·식사 등)를 고려 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른 활동에 쓸 시간(하루 1~2시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임	OECD 고용·노동시장 통계
	주거 (Housing)	과밀주거율	과밀 상태 거주 가구 비율(%, EU 정의)	가구원의 연령·성별 구성에 따른 생활공간 필요를 고려한 EU 합의 정의 기준에 따른 비율. 다음 각각에 1개 이상의 방이 없으면 과밀 상태로 보는데, 가구 내 각 부부, 18세 이상 각 1인, 12~17세 동성 2인 1조, 앞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2~17세 각 1인, 12세 미만 아동 2인 1조	OECD 주거부담 데이터베이스 (Affordable Housing Database)
		주거비 부담 (잔여소득비율)	주거 임차·유지비 차감 후 남는 가구 총조정 처분가능소득 비율(%)	주거비 차감 후 가구에 남는 가구 총조정 처분가능소득의 비율로, 주거비는 임차료(자가 점유 주택의 귀속임대료 포함)와 유지비(주택 수선비, 각종 서비스·상하수도·전기·가스·기타 연료, 가구·비품·가정용 기기 및 일상 주택 유지 재화·서비스 지출)를 포함함	OECD 국민계정

주제 영역	영역	지표명	측정 단위	지표 정의 / 참고	자료 출처
삶의 질 (Quality of life)	건강 (Health)	출생 시 기대수명	년	현재 통용되는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OECD 보건통계
		절망사	인구 10만 명당 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용사망 합 (연령 표준화, 2015 OECD 인구구조 기준)	WHO 사망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한 공식 사망 등록 자료와 OECD의 인구통계 계산에 기반하며, 자살, 알코올 및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을 합산하여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산출	OECD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WHO 사망 DB 기반)
	지식과 기술 (Knowledge and skills)	저성취학생 (수학, 읽기, 과학)	PISA 3개 과목(읽기·수학·과학) 모두에서 인지 능력이 Level 2 미만인 15세 학생의 비율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 점수가 세 과목(수학·읽기·과학) 모두에서 인지 능력이 2수준(Level 2) 미만인 학생의 비율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	15세 학생의 PISA 수학 평균 점수(표준화)	PISA 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며 중점 과목이 수학·읽기·과학으로 순환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환경의 질 (Environmental quality)	대기오염 노출 인구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WHO 권고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PM2.5 농도가 5㎍/㎥를 초과하는 데 노출된 인구의 비율. WHO 권고치는 2021년 기존 10㎍/㎥에서 강화	OECD 대기오염 노출 데이터베이스 (Exposure to air pollution)
		폭염 노출	연간 2주 이상 폭염일(최고기온35°C 초과)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	연간 2주 이상 노출 기준임 (한국의 경우 2018년에 이 값이 10.98을 보인 바 있음)	OECD 극한기온 노출 데이터베이스 (Exposure to extreme temperature)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	0~10점(11점) 척도 평균값	'전반적으로 요즘 귀하의 삶 전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 0(전혀 만족하지 않음)~10(완전히 만족)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EU-SILC 및 각국 공식 조사
		부정적 정서 균형	전날 긍정보다 부정 감정·상태를 더 느낀 인구 비율(%)	전날 긍정 감정 상태보다 부정 감정 상태를 더 많이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	갤럽 세계여론조사
	안전 (Safety)	살인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비율	가해에 의한 사망인구 비율(인구 10만 명당 비율)	OECD 보건통계 (WHO)
		야간 안전감 성별 격차	야간 단독보행 안전감의 남녀 격차 (%포인트, 여성-남성)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는 예/아니오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성별 차이	갤럽 세계여론조사

주제 영역	영역	지표명	측정 단위	지표 정의 / 참고	자료 출처
공동체 관계 (Community relationships)	사회적 연결 (Social connections)	사회적 교류 시간	주당 시간	주당 사회적 교류에 쓴 평균 시간(시간)	생활시간조사(TUS)
		사회적 지지 부족	곤경 시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	사회적 지지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느냐는 예/아니오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갤럽 세계여론조사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투표율	투표 등록 인구 대비 행사된 투표 비율(%)	각국 통계청·선거관리기구에서 수집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가 집계한 값으로, 주요 전국 선거에서의 투표율임(전국 선거는 칠레·콜롬비아·체코·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한국·리투아니아·멕시코·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그 외 국가는 의회 선거를 말함)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정부 발언권 없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16~65세 비율(%)	응답자에게 [국가]의 정치체제가 귀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을 갖도록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보느냐는 진술에 대해 0(전혀)~10(매우)점 척도로 평가하며, 발언권 없음은 4점 이하를 준 응답자의 비율	OECD 신뢰조사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 및 휴식 시간	하루당 시간 (정규직 종사자)	개인 관리 시간과 여가 시간의 합	생활시간조사(TUS)
		총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하루당 분 (여성-남성 추가 노동시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일하는 추가 시간(하루당 분, 유급+무급 총노동시간)	OECD 생활시간 데이터베이스

출처: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d.,; 현재 웰빙 웹페이지의 지표별 설명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집필 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161